

채용존도 컨설팅존도 북적... 무더위 보다 뜨거운 구직 행렬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 with 광주 일자리박람회' 둘러보니

중견·중소기업 35개사·지역공공기관 6곳 참여 67개 부스 꾸려
메이크업 부스 직접 면접 준비...공공기관 컨설팅존 긴 줄 '눈길'

"올해로 2번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 정보도 얻고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는 '2024 with 광주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취준생)들로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부터 북적였다. 지역 경기 침체로 좁아진 등용문을 돌파하기 위한 틈을 얻으려는 취준생들은 박람회 한 칸에 조성된 각 공공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날 박람회는 지역 우수 중견·중소기업 85개사가 참여하는 취업 컨설팅 박람회, 광주시와 유관 기관 주최로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우수 중견·중소기업 35개사가 현장 면접까지 진행하는 '직접채용존'을 비롯, 지역공공기관 6곳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입사 컨설팅존', '취업 컨설팅존' 등 3개관 67개 부스가 꾸러졌다.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입사 컨설팅존의 경우 다른 부스보다 몰린 취준생들로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날 박람회는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전체 참여기업들의 근로환경과 임금, 직무내용 등이 게재돼, 박람회 참여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의사가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모(여·27)씨는 "지난 25일까지 신청받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취업전략대비 입사컨설팅'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신청해 박람회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등 당사에 직접 물어보고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광주경제진흥원생업자리재단 등을 통해 게시된 정보를 접했거나, 사전예약을 신청했던 취준생들은 행사장에 입장하자마자 면접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직접채용존 중간에 마련된 '이미지메이킹 및 퍼스널 컬러' 부스와 '무료이력서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 부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화장을 하고, 사진을 새로 찍는 등 취업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또 적당한 진로를 찾지 못한 청년 취준생 뿐만 아니라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with 광주 일자리박람회'를 방문한 취준생들이 '직접채용존'에 게재된 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나라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고령 구직자 등은 행사장 한 칸에 마련된 '직업타로검색' 부스, '취업 클리닉' 부스를 찾아 타로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 컨설팅을

위해 방문한 취준생들도 많았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서준우(27)씨는 "이번주 마감된 광주교통공사를 지원했는데, 오늘 박람회에 광주교통공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보

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 지원을 했고,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서 직접 취업 컨설팅을 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쁘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행사가 자주 열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상기후에 재배면적 감소... 내년에도 사과·배 가격 급등 우려

올 재배 전년비 1.5%·2.2% 줄어

올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금 사과'와 '황금 배'로 불리며 치솟은 사과·배 가격이 내년에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사과·배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298ha로 전년(3만 3789ha) 대비 491ha(1.5%) 감소했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 2022년 3만 4603ha에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뒤 올해로 2번째 감소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데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발생할 경우 사과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 재배면적도 올해 기준 9394ha로 전년 9607ha보다 213ha(2.2%) 감소했다. 배 재배면적 역시 지난 2022년 9680ha→2023년 9607ha→2024년 9394ha로 3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 재배면적 감소는 인건비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생산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배 재배면적은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86ha로 가장 넓었다. 이어 충남(2161ha), 경기(1458ha), 경북(970ha) 순이었다.

사과와 배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 5521ha로 전년(1만 4699ha)에 견줘 822ha(5.6%) 늘었다. 이는 파종기에 평년 대비 감자가격이 높아 재배를 희망한 농가가 늘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계좌 없어도 광주은행 대출 받는다

토스뱅크와 공동 대출 서비스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광주은행·토스뱅크 간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대출심사를 각각 진행,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해진다. 대출 한도의 경우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토스뱅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되고 토스뱅크는 광주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해 보다 안정적인 대출 여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윈윈(Win-Win)'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대출 서비스는 은행 간 대출업무 위·수탁으로는 최초 사례라는 게 광주은행 설명이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올 하반기 내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첨단 기술·기업 다 모였다...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 개막

김대중컨벤션센터 사흘 일정 돌입

207개사 543개 부스 신기술 선보여

호남 최대 산업 전시회인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사흘 일정에 돌입했다.

전기차, 차량 자동 운송 로봇, 전기비행기, 드론 등 207개 사 543개 부스에서 신기술·제품을 선보인다.

그동안 주로 산업 현장에서 선보였던 '현대자동차그룹 기술 테크관'은 13개 대표 협력사가 참여,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율 주차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기술과 혁신 제품을 전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리아 파트너십 매칭 데이' 행사를 열고 지역 스타트업 기술 발표, 제품 시연 등 협력 성과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도 가전제품을 스크린 하나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연결 경험, 에너지 절감 가능한 절감 모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전문기술 포럼인 '자산 어보(자동차 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에서는 광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주 양대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모빌리티를 주제로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조선대, 전남대 등 지역 5개 대학도 공동관을 설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를 모색한다.

광주 일자리박람회, 빛고를 로봇 페스티벌, 공군사령부 부품 국산화 사업설명회,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산 미룬 재건축·재개발 조합 제재 가능

정부, 조합장 고발...광주 10곳 대상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를 끝내고도 청산을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만 10개 조합이 해산되고도 청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입주가 끝나고 조합 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광주 시 등 5개 자치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

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을 맡는 조합장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월급을 받아가는 등의 일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이 법안으로 조합 내 갈등과 청산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품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 을)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산한 광주지역 19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입주가 이뤄져 해산됐음에도 10개 조합이 여태껏 청산되지 않고 있다.

조합 해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4년 넘도록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곳 있으며 1년 이내는 5곳, 1년 경과 2곳, 2년 경과 1곳 등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개정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40대 휴가 포기자 61% '취업준비 때문'

47% '특별한 휴가 계획 없다'

휴가 포기자 10명 중 6명은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 때문에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지난 18일부터 7일간 20~40대 성인남녀 197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물어보니 응답자의 46.7%가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취업 준비나 시험공부' (6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의 17.4%는 '집에 있는 게 최고의 휴가'라고 답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12%를 차지했다.

다른 계절에 떠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선 호캉스를 가

장 선호한다는 답변(30.1%)이 많았다.

뒤이어 해수욕장에 가겠다는 응답이 26.2%,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24.3%로 각각 집계됐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나 편입과 같이 하반기 시험 준비생은 7~8월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기라 휴가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84.06 (-7.99)
↓ 코스닥	838.65 (-3.47)
↑ 금리(국고채 3년)	3.220 (+0.005)
↓ 환율(USD)	1385.80 (-2.90)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업종별 구분 적용도 촉구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내년도 최저 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

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정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 25주년

100만잔 이상 팔린 음료 재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25주년을 맞아 베스트 셀러 음료를 다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00만잔 이상 판매된 '제주 팔삭 자몽 허니 블렌디드'와 해외 매장에 출시됐던 '프렌치 바닐라 라떼'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달 19일에는 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 판매 중인 '올레아토 골든폼 아이스 웨이 큰 에스프레소 with 헤이즐넛'을 출시한다.

음료와 함께 즐길 음식도 새로 선보인다. 브리 오슈 번에 오믈렛이 들어간 '베یکن 체다&오믈렛 샌드위치', '더블 치킨 브레스트 체다&에그 샌드위치' 등 식사 메뉴와 25주년 케이크·도넛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